

연중 제 14 주일

기도서 380 편

제 1 독서 : 에 제 2, 2-5
 제 2 독서 : 고린후 12, 7-10
 복 음 : 마 르 6, 1-6

숲 정 이

발행처 :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 사 목 국
 인쇄 :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내 이웃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다

김 병 환 신부

교만이란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불필요한 단어일 것이며, 더욱이 우리 주변에 교만한자가 있을 때 대단히 거북스럽고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국어사전을 보니 교만이라는 단어를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인 풍부함을 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업수이 여긴다든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자들, 자신의 지식이나 똑똑함을 보이기 위해서 남을 비평하고, 헐뜯고, 경시한다든지,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본위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도취되어 생활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들을 우리는 건방지기 이룰데 없는 교만한자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오늘 독서에서 바울로 사도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느님께서 내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고린후 12)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바울로 사도께서도 교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 결국 교만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되며 자기 자신을 감춤으로써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많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신다.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촌 형제들마저도 그 당시엔 그리스도를 알아 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고향인들은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또 그 형제들과 누이도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동등하다, 그들 보다 못하다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영원히 그분을 멀리하고 만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생활 주변에서 많은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의 교만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보이기 위해 급하다 보니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기 보다는 비난이나 질투로 끝나 버리고 내 이웃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배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겠다.

(서학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기쁜 소식들

□ 1년이 넘는 공백기가 메워지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본 교구 제 6대 교구장이 임명된 것이다. 교구설립 50주년을 앞둔 본 교구에서는 무언가 새롭게 정립해야 할 일들이 많다. 내적쇄신과 지역사회의 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에 우리들은 우리의 참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7만 교우들이 한국 최초의 방인(邦人)자치 교구민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있는지? 주민의식이 있는지? 매사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사도 바울로의 말씀처럼 “홀륭하게 싸우며, 달릴 길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지”(2 디모테오 4,7)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결실을 해야 한다. 이 일이 새 교구장을 모시는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 어려운 한국적 상황을 타개해 보자는 시도로 새로운 국무총리가 임명되었다. 획기적인 인사였고, 또 참으로 어려운 응답이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치유를 해 보겠다는 총리의 큰 뜻과 다짐을 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총리에게 거는 기대와 그를 아끼는 마음이 극진하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총리의 업무 완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엄청난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국민 모두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취임사에서 다짐한대로 “땀한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는”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도 그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한 땀한 사람들의 응어리가 풀리기 전에는 어떠한 힘으로도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모자랄 뿐이다.

기쁜 소식에 결단이 따를 때, 그 꽃이 핀다.

숲 정 이 산책



오랫만에... 한 췌합니다!

□ 환영!

□ 200주년 준비 특집!

새 교구장에

박 정일(미카엘)주교님 선임



“진 교구민이 함께 고대하며 기도하던 주교님, 새 교구장님이 선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2. 6. 24일자로 공식 중인 본전주 교구장에 현재 제주 교구장으로 계신 박 정일(미카엘) 주교

님을 새로 임명(전보) 하셨습니다. (성 요한세자 탄생 대축일 저녁 7시 교황 대사관과 본 교구 동시 발표함). 모두 한 마음으로 새 교구장님 선임을 축하해 주시고 기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전 교우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구장 착좌식을 8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자세히 결정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교구장 직무대행 김 합철 신부

이상은 지난 6월 25일 제위 신부님, 회장님 및 기관장님 앞으로 급송한 교구 공문 제 82-22호의 내용 전문이다.

작년 4월 10일 김 재덕 주교님의 제5대 교구장직 사임 발표이래 만 1년 2개월 14일 동안 조용한 기도 속에 새 목자를 기다려온 보람으로 관례를 깨고 신부 아닌 현직 주교님이 직접 본 교구장으로 전임 발령했다는 희소식이었다. 이는 분명 교황청의 전주교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요, 전 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하나의 획기적 효시로 크게 환영하고 기쁘게 경축할 일이라 사료된다.

금번 새로 제6대 전주 교구장으로 선임되신 박 주교님은(56세) 10여년의 로마 유학을 마치고 일선 본당사목과 대신학교(광주 대전 신학대학) 교수까지 두루 역임, 학덕을 겸비한 정평있는 주교님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시다 또한 현재 한국 주교단 상임위원으로서 특히 200주년 기념회의를 담당, 무거운 중책을 수행하면서도 해외 교포 사목 담당주교로 국제간의 교류에도 폭 넓은 견식을 갖추고 계신다. 사회, 윤리신학을 전공하셔서인지 “매우 자상하시면서도 온후한 인간미를 가득 풍기는 아버지 같다”는 제자 신부님들의 평이 더욱 친근감을 갖게 한다.

이제 모두 한 마음으로 새 교구장님의 선임을 축하하며 기쁘게 환영, 착좌(着座)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단합된 자세로 새 주교님과 일치, 보다 새롭고 알찬 교구발전을 다짐해야겠다.

다시 한번 주교님 선임을 축하, 환영하며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떻게 준비하고 알릴 것인가?

한국 천주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200주년 사업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주년 기념위원회 사무국에서 준비한 기념 사업 방안을 우리 교회에 제시해 놓고 모든 분들의 의견과 충고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근래에 와서 우리는 200주년 이야기를 자주 하던서도 200년이라는 오랜 세월처럼 200주년이 아득히 먼날의 미래 사건으로만 생각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막상 준비하려고 들면 한이 없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마련이다. 도대체 1984년은 언제인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

2백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5월에 82년도 춘계 주교총회에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규정이 확정, 인준됨으로써 1. 200주년 기념 ‘정신운동’ 2. ‘기념행사’ 3. ‘사목회의’ 4. ‘기념사업’ 등으로 대별해서 추진하기로 되었다. 그러면 이와같은 기념사업들을 언제부터 어떻게 전개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점을 우리 150만 형제, 자매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겠다.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200주년을 기념하고 경축하느냐 하는 점을 다같이 알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사실을 성실하게 알려야 할 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 준비할 수 있겠는가? 방법도 역시 다양해질 수 밖에… 예컨대 주일강론과 특별강론, 주보와 가톨릭신문과 경향잡지, 소년지들을 활용하고 일반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활용하며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 또 6월까지 공모한 200주년 주제와 노래를 보급하고 성극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200주년 기념주일(매년 9월 첫주일)을 보다 뜻있게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무릇 어떤 일에도 주체가 있어야 하고 주관자가 있어야 하는 법. 주교위원회 규정을 보면 그 직속기관으로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의 ‘홍보담당’이 있는데 이 기구가 중심점이 되서 각 교구와 본당과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떠나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기구가 아니고서는 4대 기념사업 별로 4개 교구에서 따로따로 하는 결과를 낳게할 뿐이다. 끝으로 여기에 관한 의견이나 협조 사항이 있으시면 각 교구별 기념위원회 위원대표(주교위원회 산하 중앙위원 당역직)에게 제출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 食品, 土龍
(聖 베네딕트 수도원 제조)

성 모 土 龍 쎌 타

〈환, 정제, 갓셀, 엑기스〉

◎ 이리특약점 : 이리시 창인동(명보여관 앞 3층)
전화 ㉠ 8253

◎ 전주 :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8091
김 미 카 엘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렐로)

아립니다

저희 아버지 타계시에 접했던 뜨거운 사랑의 체온을 지금껏 느끼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 봐야 도리인줄 아으나 우선 지면을 통하여 그저 인사 차림이 아닌, 후끈한 謝意를 포함합니다.

이승림(베드로) 올림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김 태 윤 신부

원평성당이 신축되었다. 아담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모처럼 성당 밖 울타리를 돌며 산책을 하다가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 성전이야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실감 한다. 성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지난 일들이 새삼 기억에 새롭다.

잡초 무성한 땅에 풀을 베고, 땅콩농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성전 준비 작업을 했던 79년도, 하루 빨리 우리의 숙원인 성전을 이루고자 설재며 신축 준비에 여념이 없던 80년도, 이 해엔 신자들의 정성어린 신축 헌금 신입과 간절한 기도(성전 신축의 노래, 신축 기도문)가 시작되었으며, 12월엔 기공식까지 하였다. 8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예산에 차질이 생기고 예산했던 일들이 이루어 지질 않아 예산조정까지 해야 했다. 쌓아 놓지 않은 돈인지라 한달에 두번하는 간조는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어쨌든 적어도 노임제불은 하지 않겠다는 일념이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 은인들이 나타났다. 매월 수입의 십분의 일을 정한 날 없이 송금했던 K부부, 가난한 농촌 일선 본당에서 고생하면서도 기꺼이 뜻을 모아 준 동창신부님들, P신부님, S회장님, 몇 본당들, 2지구 회갑부조금을 현금한 가난한 신자, 그리고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보내주신 많은 분들…….

아직도 그 고마운 순간순간들이 나의 머리를 스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던 그 날들... 신자들은 문종이, 미원, 설당, 미역을 팔아야만 했고, 나는 제법 굳게 마음을 먹고 서울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던 일들... 그래도 많은 위로와 격려로 용기는 잃지 않았다.

금년 3월부터 중단되었던 공사 마무리 작업이 시작되어 5월말에 완공되었지만, 추가되는 일들이 많았다. 비품을 준비해야 했으며, 정문을 달고, 종을 옮겨달고, 날이더러 정비했다. 아직도 우리 신자들은 매일 아침 5시면 성당에 나와 제초작업, 화단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다. 모두에게 감사할 뿐이다. 고통을 주었던 이들에게도,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특히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와서 보십시오”라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외치고 싶다. “가서 기쁜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는 “감사합니다”라고…….

□ 원평성당 준공 축성

교우에서 손꼽히는 교우촌, 역사를 자랑하는 수류 본당에서 78년 분리, 600명도 채 못되는 교우들로 본당을 신설한 원평교회가 불과 4년여 만에 초현대식 성전을 준공, 그 축성식을 갖는다. 어쩌면 기적같은 역사(役事), 그야말로 신부님과 교형들의 피와 땀, 그리고 열성의 결정(結晶)이라 높이 칭양하고 박수 보내마지 않는다.

모두 감사하고, 벽촌의 이 고운 님들이 애써 이룬 오늘의 경사-대 축성미사에 뜻을 같이 하자. 격려하고, 성원하고, 축하하는, 기쁜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의 향연 올릴 수 있게... ◎ 축성미사 : 7월 5일 오후 3시(김재덕 주교님 집전)

제6대 전주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주교구 교우 일동—

코심이 (465) 김병오

금리파괴적인하로
우리기업인은 살게됐다!

금리인하로저축을얇게
되면 봉급자와...

학생들에게강제로
저축하라고할것이고...

이전 우리시민은 목돈
만들기는 틀렸어!



코오롱 맨☆스타 전주특약점

효성맨하탄

여름맞이 정기세일 30%

7.1→7.10(10일간)

전주시 중앙동 3가 26
(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②4561 ⑧8415

김 돈 중(아드리아노)

꽃과 음악
휴식이 있는 곳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전화 ②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룡)

남 베로니카

한솔 야학교 교사 모집 공고

접수기간 : 12일~24일

연락처 : 전동성당
야학 교무실

자격 : 대학생, 교사자격자

※ 뜻있는 분들의 봉사를 기
다리겠습니다.

전화 ③3222(전동성당)

숲정이 「광고」 이용 안내

숲정의 활발한 편집운영
과 교우들의 친교와 유대 협
력 관계를 위해 광고를 게재
하고 있습니다.

※ 광고 1화 1회 5천원

문의전화 ⑤ 5098

숲정이 편집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군중 후원회: 5일 <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3층, 회원을 위한 미사
2. 3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10일 <토> 오후 2시, 창인동 성당
3. '실서 40주간' 지도자 연수회: 13~15일, 가톨릭센터, 대상자-평신도·수도자, 참가비-1만원(숙박비 1만 5천원)
4. 6지구 사도회 임원 연수회: 16일 <금> 오후 5시~17일 <토> 정오, 장소-장계 천주교회
5. 교리교사 각지구 회장 모임: 11일 <일> 오후 2시, 교구청 회의실
6. 배 오션 신부님 출국: 국제 S.A.M. 총회에 참석차 28일 벨지움으로 떠나셨습니다.
7. 대신학생 하기 콘퍼런스: 일시-7일~9일, 장소-내변산, 사자동
8. 축! 영명: 5일-(대진 안드레아) 김진소 신부, 11일-(성 베네딕도) 박성운·김반석·김병운·김용태·현유복·권이복·유영도 신부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아모스 5장~8장
1. 새성당 건립을 위하여 성심껏 신입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협(30만원), 양생수·강계희·차규복·황의옥·김정생·임주택·김영춘·이상범·이동영·문지식·백복계·금암동 레지오 3팀(각 100만원), 박서운·김병익·이봉래·박영근·김귀례·성달용·김완준·박영우·박정우·이연우(각 50만원), 박남주·오재희·오중원(각 200만원), 김춘선·김집순·최창숙·안병문·김종철(각 5만원), 백정수·소호순·임준희·변순례·장순철(각 3만원), 진병기·전병진·유정자·김순자·유준영·김유자(각 20만원), 윤기환·허용자(각 10만원), 하정옥·김기봉·송동석·심옥봉·연관섭(각 30만원), 이이상(4만원), 홍길표(13만원)
 - 지난주 봉헌금: 688, 568원

(노송동)

신부 ⑥0969번 주임 신부 김성필
 주.사 ②7032번 보좌 신부 박성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모두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드립니다.
2. 웅변대회: 8월 15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범위-국민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내용-① 말씀의 체현, ②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 원고는 18일까지 보좌신부님께 제출하세요.
3.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디모데오 1, 2서, 필레몬서 전체
4.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로 연기합니다
5. 성가정회 모임: 7일 <수> 저녁미사 후
6. 학생회 월례회: 오늘 학생미사 후
7. 성령기도회: 매주 <금> 오후 2시~4시까지
8.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 <일> 공식미사후, 학생-매주 <토> 오후 4시, 남자-매주 <목> 저녁미사 후
9. 젼모임: 매주 <토> 오후 5시, 미사-매주 <일> 오전 9시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월례회: 미사후 상임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축! 영세: 새로 주님의 자녀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식미사 후 축하파티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영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젊은이들의 모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참석 바람. 대학생 이상 연령제한 없습니다. 준비물-성서·성가집·기도서·필기구
매주 <일> 저녁 8시 30분
4. 봉헌봉투 확인하시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후 미수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5.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 수요일 1시 30분 명목 1곡도 연습, 어머니를 참석하세요
6. 매 미사전에 고백성사 드림, 미사중 고백성사 없음
7. 영명축일에 협조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12, 985원 교황주일헌금: 108, 7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 안드레아 김신부 대축일 미사: 5일, 오전 10시
2. 복자부녀회: 5일 어머니미사 후
3. 성우회 야외미사: 11일 <일> 오전 10시까지 성당집합 장소-상관방면 예정(우천시 성당에서)

4. 상관성당 돕기 헌금: 다음주일까지 완납하여 주세요
5.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람
6. 차주 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유기순 ②김성원
□ 지난주 봉헌금: 428, 23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님들 회의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반장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회의실
4. 주일학교 아동교리: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 미사후
5. 미납된 교무금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6. 가정방문: 당분간 중지합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정형석 ②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240, 525원 교무금: 288, 500원

(술집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월례회: 7월 11일 오후 2시
3. 예비자 교리시간: 주일 공식미사후, 수요일 오후 2시 30분~밤 8시
4. 미사시간 안내: 아침미사-5시 30분(일·월·수), 밤미사-8시(일·화·목), 오후미사-7시 30분(금·토) 아동미사 주일 오후 3시 ※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 미사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김정주 ②홍성조, 기도-이종욱
6. 미사 안내: 이경희·권영순·서숙자·정금순·김상욱
□ 지난주 봉헌금: 473, 305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준
 사부 ②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8시 30분 미사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첫 영성체 교리: 7월 2일부터 오후 5시
5. 젊은이 하기수련회: 7월 24일~27일, 두주 앞섬, 회비-1만원(식사 제공)
6. 신축기금: 어머니 성가대(15만원), 빈첸시오회(5만원), 유귀남(복식대 1개 5만원), 최영순(4만원), 김보덕·김천기·오인순·이의옥(각 1만원), 배도진(5천원), 김유주(3천원)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현재 ②변덕배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장금래 ②김병오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신자들의 기도-박일행(세시리아)
□ 지난주 봉헌금: 556, 69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레지오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중·고학생 하기수련회 및 주일학교 어린이 하기교리: 교육부에서는 미리 예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4. 전반기 수입과 지출보고
수입-교무금 4,889,500원, 주일헌금 4,419,740원, 특별헌금 857,125원, 미수금 1,543,500원, 잡수입 224,600원, 이월금 631,677원, 계 12,566,142원, 지출 11,786,045원, 잔액 780,097원
□ 지난주 봉헌금: 182, 330원 교무금: 270, 000원

1980년 3월 성 요셉 성물 순례이 분람 행사예정

일	요일	축일	행사 예정	비고
1	월		누칼라 부녀회 월례회 주일학교 개학식	삼월절 첫날
2	화	사순제 2주일	사순회 월례회 (덕진분람 순회 방문)	
3	수		참사회	
4	목	가시미르 축일	농촌문제 세미나 주일학교 후원회	
5	금			경칩
6	토			
7	일		유치원 입학식 십자가의 길	금요일
8	월			
9	화	사순제 3주일	복자분람 서약운동방 방문	
10	수		노동절 행사	
11	목		경희산하 단체 일원 회합	관공일 첫날
12	금			관공 서신동 2
13	토			관공 서신동 1
14	일		농촌부녀지도교육 십자가의 길	금요일
15	월		청년회	
16	화	사순제 4주일	성모회 월례회 각리마분람 방문	
17	수			
18	목		선리 확인지도	관공일 진북 4반
19	금	교감 4주일	성모심주 방문	관공일 진북 3반
20	토		해바라기 농원 확인지도	관공일 추분 6반 7반
21	일		십자가의 길	금요일
22	월			
23	화	사순제 5주일	중앙분람 방문	
24	수			
25	목	성모 현모	선리 퍼그그 확인지도	관공일 진북 1반
26	금			관공일 진북 2반 - 5반
27	토			관공일 진북 1등 - 라미향
28	일		십자가의 길	금요일
29	월			
30	화	수난(성하일)	성주간 요안나 월례회 전용분람 방문	
31	수			

1914

1914

1914

1914